

清州韓氏節制公派世譜序文

凡族譜는 萬姓이 皆當刊行이바 始祖以下 各分流分派의 裔孫들이 系統系代를 繼承하고 歷代先祖의 偉大한 忠節孝行과 功勳德行은 勿論 諸行儀遺事를 史乘하여 世上에 誇現하고 祖上의 聖스러운 業을 追慕하며 先代祖의 衣履藏地와 世孫들의 情어린 生活相應을 家寶로 詳錄明記하여 保藏함으로써 敬祖睦族하고 宗族의 傳統을 血統의 精華로 昇華하여 各己의 生涯에 榮光과 衿持로 간직함이 譜牒을 繼承連刊하는 眞實된 意義이다.

韓宗門의 族譜는 李朝光海九年(一六一七)에 始刊하였고 其後九次의 繼刊으로 至於 忠簡公派譜이며 又後 壬寅에 節制公派譜를 續刊하였으나 同譜는 漏載가 許多하고 既過 二十數年이라 改修補完을 恒如切感하던中 幸甚此歲에 吾派各門이 烏鵲이 銀漢에 築橋하는 精誠으로 大同協心하여 一大門業으로 今以刊行世譜하니 豈非宗門之美事乎리요、不必架疊隨時熟覽하여 焉하고 崇祖尚門의 宗誼를 感發할지

어다、余裔末은望囑컨대 吾派僉宗은 歲序積年後次期刊行에 勿失宜時
하고 이崇高한 修譜理念을 恒心持重할것이다。

西紀一九八二年 壬戌 孟夏

清州韓氏節制公派宗親會長
節制公派世譜刊行委員長

節制公十九世孫

泰鉉

謹序

節制公派壬戌世譜序

族譜란 같은 血統의 氏族史籍으로서 그 淵源과 分派 및 序列을 昭明하고、先代에서 後世에 이르기까지 生歿과 行誼 등을 詳記하여 傳授함으로써、崇祖睦族의 情誼를 感興 시키고 後裔로서의 矜持를 드높여 家門의 繁昌과 國家社會에 貢獻케 하려는 宗門의 實典이다。 이와 같은 譜牒의 意義는 비록 世變俗改라도 永遠不異할 것인바、우리 節制公 派孫은 이 崇高한 修譜의 理念을 좇아 舊譜의 漏載誤錄을 補正하고 새로운 後繼世代를 添加登載하여 이 斬新整然한 壬戌派譜를 刊行하였으니、이는 우리 宗門의 至極한 慶事로서 함께 慶賀할 일이다。

우리 淸州韓氏는 上古朝鮮의 文聖王箕子를 淵流로 高麗開國功臣 太尉公 諱 蘭 一世祖 以後 名相巨卿과 忠孝節義의 碩德이 世世不絶 하였으니 이는 根深葉茂의 當然한 歸結 이며、우리 後孫에게 길이길이 昌盛할 未來를 懷妊케 하는 確固한 緣由이기도 한 것이다。 모름지기 우리 宗人은 祖先님들께서 確立하신 悠久한 傳統과 偉業을 仰顧하고、後孫 으로서의 堂堂한 姿勢를 定立함은 勿論、앞으로도 可謂 海左의 嚆矢로서 大同譜를 編成하여 傳承하신 先代遺業을 刻念하여 修譜宗事에도 懈怠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今 般壬戌派譜로 우리 節制公派는 十一回의 大譜 및 派譜를 刊行하게 되는 것이니、이를

節制公派壬戌世譜跋文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淵源 없는 물이 없듯이 祖先이 없는 氏族이 있을 수 없음은 自明하며, 또 뿌리가 堅實하여야 枝葉이 繁茂하고 淵源이 深長하여야 派流가 滔滔하며, 祖先이 深長赫赫하여야 그 子孫이 昌盛함은 天理의 大道입니다. 일찌기 哲人 程子가 管攝天下人心이 莫如明譜系라 한 바와 같이 譜牒은 氏族의 源流를 밝혀 敬祖睦族의 情誼를 感發시키고 나아가서 社會의 人心과 天下의 風俗을 醇化하는데 그 本然의 理想이 있습니다.

우리 淸州韓門은 箕朝創業의 太祖 文聖王 箕子를 源流로 하여 四千餘年의 悠久한 氏族史를 가진 海東의 名門盛閥로서, 그 동안 어찌 榮枯와 盛衰가 없었으리오마는 우리 祖先님들께서는 한결같이 危難과 試鍊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氏族萬代의 繁榮을 위하여 遺訓과 德行으로 그 基礎를 다지셨고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勲功과 偉業을 宣揚하였으니 이는 곧 우리 氏族의 根源과 긴 傳統의 底力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우리 祖先께서는 이와 같은 宗統을 定着深化시키고자 可謂 東國嚆矢의 大宗譜를 일찌기 李朝光海九年(一六一七·丁巳)에 修撰한 바 있으며 以後이 宗事는 오늘에 이르도록 傳承하였으니, 우리 先代 祖上님들의 達觀的 慧眼과 後孫을 向한 深慮에 欽仰의 情을 가슴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韓門이 大同譜를 修譜한 지 이미 長久한 歲月이 흘렀기에 先代의 宗統을 되살려 이 宗事를

實現함이 全宗族의懇切한 所望이나 그 課業이 너무 巨創할 뿐 아니라 國土의 分斷等 現實的 與件이 또한 이를 容納하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 節制公派는 壬寅譜를 修撰한後 二十數 星霜이 經過하였으므로 同譜의 漏載를 補完하고 그間의 變異를 整理 收單하여 派譜를 刊行키로 宗論이 一致하여 本譜를 出刊하게 된 것입니다. 이 宗事를 위하여 門老、收單委員 諸位께서는 晝宵를 不顧하시며 八路의 宗門을 探訪하여 漏落 誤載가 없도록 收單 編輯에 心血을 傾注하였으며 이에 全宗人의 率先協力이 調和를 이루어 比較的 短期間에 原稿가 完成된 것입니다. 此際에 吾宗은 함께 이분들의 勞苦를 致賀하고 各宗門과 賢宗의 協助에도 서로 感謝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로써 壬戌仲夏에 譜稿가 完成됨에 宗意로써 不肖에게 責任을 專擔케 하여 出版의 大任을 주시니 宗親의 一員으로서 無限의 光榮이긴 하나 淺學非才의 無能을 自認하여 자못 두려움이 앞서 躊躇하면서 宗人으로서 固辭하기 어려워 微力이나마 最善을 다하기로 決心하고 敢히 受任하였읍니다. 各賢宗의 物心兩面의 協助 및 어려움을 무릅쓰고 出歛하시는 出版費用에 힘입어 제 나름 대로는 美麗한 活字를 새로 마련하고 體制·組版·印刷·裝幀·紙質等에도 細心한 注意로써 現代의 感覺을 調和시켜 宗門의 所望에 最大限 副應코저 留念努力하였읍니다마는, 막상 奉納에 즈음하니 不朽의 宗寶로서 完璧無瑕한지 憂慮不禁입니다.

아무쪼록 去 壬寅年에 이어 두번째로 刊行되는 本派譜가 우리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이 譜牒의 出刊을 契機로 우리 宗親은 崇祖睦族의 宗誼가 더욱 敦篤해짐은 勿論 本譜

가秘藏架疊으로 끝나지 않고 宜時閱讀되어 修譜 本來의 理念이 百世에 길이 繼承具現 되기를 祈願
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譜刊行에 積極 聲援해 주신 忠求·基春 顧問·泰鉉 委員長을 비롯하여 錫坤·冕熙·東
燮·正壽 副委員長 및 庶務 洙溢、財務 澤·澮 諸位께 깊은 謝意를 表하오며 特히 本譜 編輯에
刻苦하신 哲秀尊宗과 校正에 勞苦하신 萬重·求鉉 僉位께 再三 感謝하는 바이오며 아울러 本譜
題字에 선뜻 應해주신 書藝家 睡巖 韓禎達 (文靖公 後裔) 一族에게 深深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西紀 一九八二年 壬戌 晚冬

節制公派世譜刊行委員會 總務

節制公十九世孫

裔末 茂鎮

(茂秀)

謹跋

清州韓氏節制公派世譜 壬戌

一世

始祖 韓蘭 한란

佐高麗統合三韓三重大臣門下大尉謚威襄公始居清州方井里
 麗太祖十一年唐明宗天成三年戊子太祖征甄萱道出宅前公仗劔出迎以濟十萬
 兵一日之餉遂從以驅馳贊成統合之勲開國陞上功臣事蹟載麗史
 配宋氏墓在清州治南十五里南一面駕山里乾坐合兆申得辰破之原壬亂後失護
 而後孫百謙為清州牧使尋得遺墓西平君浚謙撰方井里遺墓碑築壇歲一祭
 肅宗十四年戊辰後孫根為清州兵使協力於聖憲探問則盧李兩姓之陪礪為井甃
 而冒葬矣與兵使尋得片石字劃完然參判聖佑掌令浚下于官朝家遣京兆郎開
 擴搜誌見明據而掘去偷塚遂改封瑩域埋誌立碣置祭田承旨構撰碣銘領相翼
 纂撰神道碑銘生員益著撰務農亭碑陰記 正宗十八年甲寅及庚申後孫合力
 增置祭田 純祖十年庚午重建祭閣庚寅重建務農亭及神道碑十月一日行歲一
 祭

二世

子 穎 영

麗光宗朝武大科龍
 讓軍校尉官制西
 班有鷹揚上將軍
 此時百官禮服從
 中原服定制

三世

子 尚休 상휴

成宗朝武科別將同
 正官多襲唐制同
 正員內外職皆兼

四世

子 奕 上卷 111

子 奭 上卷 177

子 奭 宗 조

五世

子 希愈 희유

麗仁宗朝武科至檢
 校神虎衛上將軍
 仗府別將

六世

子 光胤 광은

麗仁宗十二年甲寅
 生 毅宗朝登第
 朝正大夫行禮賓

七世

子 康 강

初 璟
 麗高宗十五年戊子
 生三十年癸卯國
 子監試壯元時年
 十六登第匡靖大
 夫都僉議中贊修

八世

子 謝奇 사기

高宗四十四年丁巳
 生 元宗朝登第
 朝靖大夫賓文閣
 提學知制誥 元
 朝宣授東征行中
 書省左右司員外

九世

子 渥 악

字子希號誠齋
 麗元宗十五年甲戌
 生 忠烈王二十
 九年癸卯至左右
 衛大護軍密直左
 承旨尋轉鷹軍

十世

子 大淳 上卷 118

子 公義 上卷 119

子 仲禮 중례 恭愍王朝登第政堂